

언론동향(11. 16.)

《언론보도 목차》

1. (뉴스핌) 지석환 경기도의원 ‘DMZ 국제다큐영화제’ 운영방식 개선 요구 2
2. (민중의소리) DMZ 관광콘텐츠 뮤지컬 ‘원더티켓’ 한 달간 온라인 무료 상영 3
3. (경인매일) 인천시, ‘DMZ 평화의길’ 강화군 테마노선 개방 5
4. (강원일보) 포럼·세미나·학술대회 통해 DMZ 브랜드 가치 제고 7
5. (국민일보) 최종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평화 틀 만드는 게 중요” 8
6. (서울신문) ‘위드 코로나’ 맞춰 판문점 JSA 견학 재개될 듯...약 4개월 만 .. 10

지석환 경기도의원, 'DMZ국제다큐영화제' 운영방식 개선 요구

원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3:59 /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3:59

가 +

가 -

프린트

좋아요 0개



[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지석환의원(용인1. 더민주)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화 콘텐츠 사업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지석환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2021.11.15 kingazak1@newspim.com

지석환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콘텐츠 사업 중 이용안내 사이트에 보면 특정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유와 시간에 구애없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잘못된 안내 사항을 꼬집었다.

또한 유사한 다른 사업명을 검색하면 조회수가 저조하고 상영기간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간 설정을 했다"고 답변을 했다.

지석환 의원은 "유튜브는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고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조회수에 비례해 수익창출이 된다"며 "그 수익금이 다시 창작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kingazak1@newspim.com

민중의소리

DMZ 관광콘텐츠 뮤지컬 '원더티켓', 한 달간 온라인 무료 상영

윤도현, 유희승 등 출연...15일(오늘)부터 시청 가능



김세은 기자 ksw@vop.co.kr 발행 2021-11-15 16:44:12 수정 2021-11-15 16:44:12



뮤지컬 원더티켓 ©한국관광공사 제공

커블 신제품
73%혜택 받아주세요
이번 주만 하나사면

이번주특별내고
연경언니가 쓴다
ABLUE, 에이블루

← Google 광고
의견 보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페이스북 사진이나 프로필
게시물 좋아요가 급할 때
업계 1위
Green Insta

제네시스 공식 유튜브
구독하고 최신 소식
확인하세요.

한반도의 과거를 돌아보고 평화로운 미래를 그리는 문화관광 콘텐츠 쇼뮤지컬 '원더티켓'이 온라인 스트리밍을 시작한다.

지난해 초연된 쇼뮤지컬 '원더티켓'은 비무장 지대(DMZ)라는 '단절과 갈등'의 공간이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공연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DMZ 대표 관광콘텐츠로 기획됐다.

NEW강동자동차운전전문학원
<http://www.jeil82.com>

신규면허법대비, 매일자체시험으로 합격률UP! 신호교차로부터 T

자세히 보기

지난 9월 이 공연은 임진각 평화누리 대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지난 9월 25~26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로 장소를 옮겨 관객과 만났다.

이번 온라인 스트리밍은 그동안 꾸준히 요청되어 왔던 국내외 팬들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작품은 자유의 다리에 멈춰 선 녹슨 '기관차'와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을 소재로 만든 창작뮤지컬이다.

여기에 영상을 통해 대형 ABR에 더해진 프로젝션 맵핑, 홀로그램, 키네틱 라이팅볼 등 공연콘텐츠에 첨단 기술들을 접목하여 색다른 감상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출연진의 가창력과 연기력은 또 다른 감상 포인트다. 20년이 넘도록 국내 최정상 보컬리스트의 자리를 지킨 윤도현이 지난 시즌에 이어 바람의 신 '풍백'으로 출연했다.

또한 뮤지컬 '위윳락유', '광염소나타' 등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엔플라잉 유희승이 새로운 '풍백'으로 출연했다.

'노신사' 역에 이황의, 노신사의 손녀 '해나' 역에 이서영, '단야' 역에 이장원 등 극에 활력과 재미를 불어넣는 탄탄한 배우들이 캐스팅됐다. 이외에도 35명의 출연진들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함께 완성시켰다.

쇼뮤지컬 '원더티켓'은 15일(오늘)부터 유튜브 M2, PLAYDB 채널과 네이버TV 네이버 공연, 원더티켓 채널, 브이라이브 V MUSICAL 채널, TVING 등을 통해 한 달 동안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인천시, 디엠지(DMZ) 평화의 길강화군 테마노선 개방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11.15 01:31 | 댓글 0

강화군 '강화전쟁박물관 ~ 대룡시장' 구간 관광 프로그램 운영
강화, 김포, 고양, 화천, 양구, 파주, 고성 등 7개 테마노선 개방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개방 테마노선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는 11월 20일부터 강화군 비무장지대 인근의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위축된 지역관광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화군 노선은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신규 테마 노선으로 △강화전쟁박물관 △강화평화전망대 △의두분초 △대룡시장을 둘러보는 코스로 마련됐다.

강화군 테마노선의 이동거리는 철책선 도보길 약 1.5km를 포함해 총 61.1km로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이동 중에는 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코스 외에도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연미정, 북한이 한눈에 보이는 교동 망향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고인돌과 고려시대 왕릉 등의 관광자원을 통해 강화군만의 멋을 느낄 수 있다.

강화군 노선은 11월 20일부터 12월26일까지 주3일(금·토·일요일), 1일 2차례(09:00, 14:00)운영되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 확인자(3일 이내)에 한 해 참여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DMZ 평화의 길' 홈페이지와 걷기, 자전거 여행 어플 '두루누비'를 통해 11일부터 사전예약 할 수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강화군의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개방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접경지역에 새로운 동력을 주며, 더 나아가 남북평화 촉진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디엠지(DMZ) 평화의 길'테마노선 사업은 비무장지대 인근의 훼손되지 않은 생태·역사·평화 자원을 활용해 남북평화 촉진과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인천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총 526km에 걸쳐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10개 지자체 노선으로 조성됐다. 2019년 4월부터 3개(파주, 철원, 고성) 노선을 시범적으로 개방해 관람객 1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2019년 9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이번에는 노선 정비와 철새 보호 등을 위해 3개 노선(연천, 철원, 인제)을 제외한 7개 노선을 개방한다. 특히 파주와 고성 노선의 재개방과 함께 강화, 김포, 고양, 화천, 양구 5개 노선을 처음 선보인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kjh6114@kmaeil.com

포럼·세미나·학술대회 통해 DMZ 브랜드가치 제고

/ 제17회 DMZ 평화상 수상자 / 특별상 - 강원대 DMZ HELP센터

정치

2021-11-16 (화) 8면



강원대 DMZ HELP센터(센터장:김창환 교수·사진)는 2006년 DMZ 연구를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대학연구소로, 그동안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 등을 통해 DMZ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해 왔다. 또 35회의 포럼·세미나·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에 DMZ와 관련한 학술 성과를 알렸다. 특히 2006년 DMZ 수달 프로젝트 기본계획 연구, 2010년부터 5년간 진행한 DMZ와 접경지역 내 지오파크 조성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을 통해 평화지역 발전에 도움을 줬다.

이와 함께 올해 DMZ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DMZ지리지' 발간을 통해 지역학 차원에서 DMZ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하는데 기여했다. GIS기법을 활용해 DMZ 내 사라진 마을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 및 복원 연구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종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평화 틀 만드는 게 중요”

입력 : 2021-11-16 05:02 / 수정 : 2021-11-16 08:03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이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의 한·미 전략포럼 기조 연설에서 “불완전한 평화 상태에서 전쟁 공포 없이 일상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한국 정부의 책무”라며 “우리의 초점은 대북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환상을 갖고 본적이 없다.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의심하거나 주저하고픈 마음이 들 수도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평양이 계속 관여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에 ‘최선의 선택은 프로세스를 이어나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한·미 동맹의 강력한 조정과 협력으로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 수 있다"며 "종전선언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좋은 티켓"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종전을 통해 비핵화에서 불가역적 진전을 만들고 비정상적으로 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인지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최 차관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새 질서를 만들어가는 입구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외에 누가 그런 담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수 있겠느냐"며 "평화체제는 남북 간 정치관계, 군사적 신뢰 구축, 경제·사회 교류 등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범과 원칙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다만 "문재인정부가 6개월가량 남았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8년 관계 개선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경험을 언급하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미·중 경쟁 사이에 처한 한국의 입장을 묻자 "우리는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 분명히 미국의 지지와 지원, 동의와 협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파트너십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다.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 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위드 코로나' 맞춰 판문점 JSA 견학 재개될 듯...약 4개월 만

f t uax b | blog | 0

입력: 2021-11-15 17:55 |



▲ 판문점 경계근무 서는 유엔사 장병들
판문점에서 유엔사 장병들이 비무장 상태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 2020.11.4. 사진공동취재단/서울신문DB

가장 많이 본 뉴스

- 1 폐까지 절단
최민수, 심지
- 2 김부선 "강남
- 3 그리스 언론
- 4 "아파트서 감
- 5 "인싸들만

고양 동문
분양

- ✓ 주거형
전용 59
- ✓ 화정역
- ✓ 전세대
(10명서

서울Eye : 포토



오늘의 핫 클릭

유엔사 "한국정부와 조율해 발표 예정" 4월 재개됐다 7월부터 중단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판문점 견학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군사령부는 15일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의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유엔군 사령관은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의 확대 시행을 승인했다"며 "곧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과 민간인 대상 견학 재개 일정을 최종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 4월 재개됐다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7월에 잠정 중단됐다.

지난 1일, 통일부는 견학 재개 시점과 관련 "유엔사 등 관계 기관과 견학 재개 시점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며 "관련 협의를 마치고 재개 일정이 정해지면 공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